

[번역]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브루스 커밍스 인터뷰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

<https://youtu.be/Yo6mDqw-rhA>

(이 글은 5년 전인 2018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당시, 미국의 방송 ‘민주주의의 지금 당장 필요해(Democracy Now)’에서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에이미 굿먼: ‘민주주의의 지금 당장 필요해(Democracy Now)’ 방송 democracynow.org, 온라인 채널에서 전쟁과 평화 보도 시작합니다. 저는 에이미 굿먼이고, 후안 곤잘레스와 함께합니다. 현재 우린 시카고 대학의 교수이고, 한국 관련한 몇몇 서적과 더불어 『한국 빛나는 태양이 비추는 곳: 현대역사(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북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나라(North Korea: Another Country)』 등의 저자이기도 한 브루스 커밍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커밍스 교수님은 수십 년 동안이나 한국에 관해 연구 및 지켜봐 왔는데, 따라서 오늘 미국과 북한 양국이 서명한 협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교수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는지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또한, 이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반복되는 것인지, 과거의 고난을 정말로 한 획을 그을 만큼 해결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얘기해주시길 수 있죠?

브루스 커밍스: 뭐라 말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북한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에 관한 첫 번째 원칙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미국이 하나의 국가로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인, 1946년 2월 미국은 김일성이 북한을 지도하는 인물로 부상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길 거부했습니다. 김일성이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효율적으로 장악했는데도 말이죠, 당시 미국은 이에 대해 소련 공산당의 간악한 책략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미국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강한 자존심을 과시하고 또 다른 국가들로부터 존경 및 인정받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데올로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협정에서의 첫 번째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협정이 실질적으로 실행됐을 때 말이죠.

둘째, 굿먼 씨도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수히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바라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직후나 대략 60년 동안이나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팀 서록[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깊이 연구한 기자. 광주에 미국이 관여한 것을 입증한 체로키 파일을 구한 것으로 유명하다.-역자] 기자의 말에 더 동의합니다. 가장 놀랍게도 그러한 트럼프가 전쟁 연습 그 자체가 도발적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 그러한 행위를 멈추거나 최소한 중단하는 것은 말한 적도 없다는 사실에서 말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당시, 북한측의 미사일이나 폭탄 실험과 관련된 아주 특수한 위기가 있었는데, 오바마는 핵탄두를 장착한 폭격기를 한반도로 보내 가짜 원자폭탄을 한반도의 어느 섬에 투하했습니다. 팀 서록 기자가 말했듯이, 이러한 전쟁실험 게임들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미국의 시도를 포함하고 있고, 전쟁 초기 단계에 원산에 미 해병대를 상륙시켜 평양으로 진격시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전쟁 게임들이 취소되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상황을 보고, “잠만, 이런 행위는 비용도 많이 들고 매우 도발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상당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또한 정상회담에서의 연출 즉, 트럼프가 성조기 바로 옆에 있는 북한 국기를 보고 북한의 지도자를 매우 똑똑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을 듣고 보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는 크리스틴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물론 저 또한 도널드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온갖 비난을 하는 비방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지만 트럼프는 직접 경험을 통해 형성해 가는 관계를 믿는 사람이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잘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후안 곤잘레스: 브루스 커밍스 교수님, 저는 이번 북미관계 역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시청자와 청취자들을 위해 질문하고 싶은데,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북한에 들어가 저질렀던 파괴가 과연 어느정도였는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나 미국과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 등과 같이 아시아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 및 변천에도 불구하고 왜 한반도만이 미국이 냉전지역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있고 왜 현재도 그런 건가요?

브루스 커밍스: 일단 두 번째 질문을 먼저 얘기하자면, 이건 아주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선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평양과 워싱턴 관계의 개선을 원하는 남한 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9년 동안이나 그걸 원하는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뒤, 대통령 문재인은 즉각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죠. 크리스틴이 말한 것과 같이, 문재인은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는데 정말 중대한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용적이고 실용적인 한국 대통령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자주 접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일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집권했던 1990년대에 이미 일어난 일이며, 김대중 또한 북한과 협상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대중과는 달리 문재인은 경험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한국의 또 다른 진보 대통령인 노무현의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할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과정에 직면하게 된 주된 이유라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북한 사람들이 아는 것은 자신의 가족이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한 소이탄 폭격으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의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데 사용한 폭격 장치는 적당한 크기의 도시가 15에서 16개 정도 있는 북한으로 옮겨졌고, 북한의 모든 곳은 지구 표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미 공군측의 공식 통계는 [폭격으로 인한-역자] 북한 도시들의 파괴율이 때때로 100%에 달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에서의 파괴율보다도 평균적으로 더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 공군은 북한의 모든 지역과 마을 그리고 도시에 네이팜탄을 광범위하게 투하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조차도 1953년에 아이젠하워에게 전보를 보내며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네이팜탄을 발명했을 때 폭탄이 민간인들에게 그만큼 모두 흩뿌려졌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이죠. 역사학자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민간인들이 40%였던 데에 반해, 한국전쟁에서는 70%가 사망했다고 추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한국전쟁은 매우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걸 모든 북한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